

직장인들의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eisure Constraint on Leisure Attitude of Workers

송호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윤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유수현

Songho College, Dept. of Social Welfare
Full-time Instructor : Yoon, So-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Moon, Sook-Jae
Ph. D. Candidate : Yoo, Soo-Hyun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which factors affect on the leisure constraint and leisure attitude of workers, to observe how the factors of leisure constraints affect on the leisure attitud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7 urban workers who are older than 20 years old and resident in Seoul. The periods of this study was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5. The modified versions of leisure constraint scale and leisure attitude scale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as a result to compare the average of leisure constraint factors, intrapersonal constraint, which are individual mental status as interest, self-consciousness, uneasiness et al., was founded generally less than interpersonal constraints as personal relationship for leisure activity, or structural constraints as financial, time, information et al., Secondly,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constraint

* 주저자, 교신저자: 윤소영(soyoung@songho.ac.kr)

was statistically different in age, and that structural constraint was statistically different in sex, education,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income, and career. Thirdly, ther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cognitive leisure attitude, feeling leisure attitude, and behavioral leisure attitude accord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and career. But, it was found that marital status and the five-day workweek system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3 leisure attitude factors. Finally, 3 leisure constraint factors(intrapersonal, interpersonal, structura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leisure attitude. Also, intrapersonal leisure constraint and interpersonal leisure constrain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eeling leisure attitude and behavioral leisure attitude.

Key Words : 내적여가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 대인적여가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 구조적 여가제약(structural constraint), 인지적 여가태도(cognitive leisure attitude), 정의적 여가태도(feeling leisure attitude), 행동적 여가태도(behavioral leisure attitude)

I. 서 론

2002년 7월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주 5일 근무제는 단순히 노동시간 축소가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끼칠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가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중심의 사회로 변해 가는 하나의 중거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사회는 여가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 선진국형의 여가참여형태, 해외여행의 증가, 자연 탐구적인 여가참여, 웰빙(well-being)과 같은 몸과 마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송원익·여인성, 2004).

더욱이 노동시간의 감소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인 여가·문화생활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MBC와 한국여가문화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문화 이용 행태 변화'(2002) 결과를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직장인의 여가시간은 휴식이나 수면, 혹은 미디어활동처

럼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여가활동에 투입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인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가족 유대감 강화나 자기개발, 혹은 레저나 스포츠활동처럼 자신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여가참여를 통해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여가에 대한 지출 가능한 비용 부족, 여가기술의 부재, 여가참여를 함께 할 사회적 집단의 부재 등은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여가권태(leisure boredom)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증대의 기회와 함께 제한적이고 부족한 여가제약 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또는 leisure barriers)이란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 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인(대인적 및 상황적)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제약이란 여가선호와 참여사이에만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호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여가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며, 개인의 수준에서 지각되는 심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제약요인은 개인의 여가선흐 및 여가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여가 참여활동의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 결국 개인의 여가활동의 질(내용)과 양(시간량)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여가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여가기회를 확대하여 여가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몰입해 가는 노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여가에 대한 초기 연구가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소극적이며 산업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가 가진 이점을 규명하여 국가단위나 지역단위의 여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더불어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Buchanan & Allen, 1985; Jackson & Searle, 1985). 여가제약연구는 일상적 여가활동이 형성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켰으며, 여가선택과 경험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Jackson, 1990; Jackson & Witt, 1994; Shaw, 1994; 이승구, 2002; 이훈 외 2004). 점차 여가활동 결정에 대해 여가제약의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정교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여가를 형성하는 변수들과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Jackson & Henderson, 1995).

한편, 도시근로자의 여가연구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지난 20여년간 연구들은 주로 시간적 개념으로서 여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심리적인 측면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한 여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성희·이철원, 2003). 또한 여가 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인지적 자유도(perceived freedom)와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연구 주제로 간주하는 연구방향

과 아울러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 가치, 인지도, 동기, 그리고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조기정, 1985; 홍석표, 1992; 박수정, 1994).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직장인의 생활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 5일근무제 실시 이후에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여가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가제약요인이 직장인들의 여가태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도시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여가제약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여가제약요인이 여가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인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여가제약과 여가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올바른 여가태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여가제약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이란 용어는 개인행동 '제약'요소로 경험되는 인간의 내적 심리상태, 태도, 특성 그리고 외적인 인간상호간의 상황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회심리방법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은 여가선흐나 행동을 극복할 수 없는 결정요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표영희, 1997).

여가제약에 대한 최초의 개념적 모델은 Iso-Ahola(1981)가 개발하였으며 그 이후 Iso-Ahola와 Mannell(1985)은 여가제약의 개념을 검토할 때 우선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제약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점을 지각하고, 제약을 지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소재지), 어떠한 요소의 제약

이 있는지(형태), 그리고 제약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지속성)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Crawford 와 Godbey가 1987년 여가제약의 개념을 밝히기 이전까지는 여가제약의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채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이후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또는 *Leisure Barriers*)의 개념은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결합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혹은 성격과 외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의 결정적 요소로서가 아니라 선호와 참여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Crawford & Godbey, 1987)로 정의된다.

여가제약은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두 가지 요인이란 무엇인가의 결핍이나 과다를 지각하는 것이다. 즉 어떤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개인의 느낌은 첫째,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무엇이 아니라는 느낌, 예를 들어 능력, 금전, 시간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둘째, 여가제약은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거나 무엇이라는 느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남자의 활동이라고 기대하는 활동을 못하겠다고 느끼는 것 등이 그 예이다(황인남, 2000).

일반적으로 여가의 제약 요인에는 시간, 비용, 능력 등 개인적인 제약요인과 시설, 기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조사대상이 되는 여가활동의 종류 및 조사 대상에 따라 그 외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선호와 참여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설정된 Crawford & Godbey(1987)가 주장한 세 가지 제약 요인을 근거로 하여 세 가지 제약 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s*)요인

은 여가선호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상태들과 태도를 포함한다. 내적제약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광신, 친족과 비친족 집단의 태도,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이용성과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약들은 성격상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쉽다. 이 제약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그것들은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 경험된다. 둘째, 대인적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요인은 사람들의 특성을 사이의 관계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 제약은 결혼관계에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공동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상호간의 산물이거나,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나타나는 제약이다. 이런 종류의 제약은 공동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는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호의 불일치가 심하면 공동 여가활동 참여가 방해를 받을 것이다.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은 여가활동 참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족의 여가참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과 갈등, 그 해결, 대인적 권력과 같은 상호간의 특성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 범주의 제약은 가족내의 부모-자녀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만일 특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적절한 파트너가 없을 때 인간상호간의 제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요인은 여가선호와 참여 사이에 매개되는 요인이다. 예를 들면,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경제적 자원, 계절, 기후, 작업시간의 일정, 기회 이용성, 특정 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준거집단 태

도 등을 포함한다.

2. 여가태도

태도는 사람들이 대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양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도란 태도 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인 준비 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경험에 의해 획득된 심적 준비 상태로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Olson & Zanna, 1993). 인지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하여 소지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또는 중성적인 상념과 지식 등을 말하며, 평가요소 혹은 정의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좋은지 싫은지의 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요소가 있다. 이는 태도 대상과 관련하여 호의적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행동, 의도의 측면을 말한다.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3가지 즉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며(Hollander, 1971; Katz & Stotland, 1959; Lindgren, 1969; Neulinger, 1976), 특히 Ragheb과 Beard(1982)는 여가태도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Ragheb과 Beard(1982)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과 신념, 그리고 결과(인지적 태도), 좋아함, 싫어함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다른 느낌(정의적 태도), 그리고 여가활동에 관하여 과거 혹은 현재의 행동 패턴(행동적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여가태도가 성별, 교육수준, 건강, 수입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Robinson(1969)은 조사대상 남

녀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나고 있으며, 만일 남녀의 여가시간이 같을 지라도 여가의 본질과 질적인 면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 중 직업과 소득의 영향력과 분리하기 어려우나 개인의 여가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되며 직업과 소득 수준이 고려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Neulinger(1981)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일과 여가활동의 성질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과 여가 모두에 영향력이 차단되어져 있다고 했다. 한편, 여가에 대한 건강의 영향력은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연령과 상호작용한 효과로 나타난다. 관련연구들은 고령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Riddick(1985)의 연구나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Sneegas(1986)의 연구에서 건강이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면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김경태(1996)는 인지적인 태도와 정의적인 태도에 매우 높은 긍정도를 보이고 있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행동적인 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행동적인 경험이 피드백을 주어 신념을 형성시키고 정의적 태도에 영향을 주면 전체의 여가관에 변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직장인의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

<표 1> 각 요인별 신뢰도

요인		문항	Cronbach's α
여가 제약	내적 제약	7	.6823
	대인적 제약	7	.6044
	구조적 제약	7	.6698
여가 태도	인지적 요소	12	.9192
	정서적 요소	12	.9177
	행동적 요소	12	.8293

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변인에 따른 직장인들의 여가제약(내적, 대인적, 구조적)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관련변인에 따른 직장인들의 여가태도(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직장인들의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여가제약 및 여가태도의 관련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건강상태, 결혼여부, 수입 등 개인적 요인과 직업유형, 근무경력, 주5일 근무여부 등 직업적 요인 등 9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가제약의 경우 ‘여가에 대한 선호와 참여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Crawford 등(1991)이 여가제약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구창모(1995)의 설문지를 본 연구대상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요인은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제약요인(수줍음, 가족의

시선, 불편함, 친구의 시선, 신앙, 남의 눈치, 기술부족), 대인적 제약요인(주변사람들에 대한 거리, 경제적 여유, 과증한 집안일, 동반여가활동, 새로운 기술, 이동수단 등의 제약), 구조적 제약요인(여가시설, 시간제약, 이동수단, 정보와 자원, 시설의 편리, 경제적 제약)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각 요인별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드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Ragheb과 Beard(1982)가 개발하고, 윤재섭(1991)이 번안한 여가태도척도(LAS: leisure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여가태도척도의 문항¹⁾들은 인지적 구성요인 12문항, 정의적 구성요인 12문항, 그리고 행동적 구성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들은 5점 리커드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분석에서는 여가제약과 여가태도의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

1) 여가태도를 묻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인지적 요소에는 ‘여가활동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여가활동은 행복을 증진시킨다’ 등, 정서적 요소에는 ‘나는 여가활동 중에 나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여가활동에 쓰는 시간이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다’ 등, 행동적 요소에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나는 바쁘더라도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이다.

상의 근로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여가 활동과 관련된 노동시간단축의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외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고용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회수된 자료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명되었거나 조사내용이 누락된 33부를 제외한 26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s용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여 관련변인별로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값의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변인에 따른 여가제약과 여가태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χ^2 검증, t 검증, F검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 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 분석

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관련변인에 따른 여가제약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흥미, 자기자각, 불안 등 개인적인 심리상태나 특성을 나타내는 내적 제약이 여가활동을 위한 인적관계나 교류에 대

한 대인적 제약이나 재정, 시간, 정보 등의 구조적 제약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대상자인 20대 이상 직장인들은 여가활동을 함께 할 적절한 동반자가 부족하거나 돈, 시간,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여가활동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적제약요인의 낮은 평균값은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적 여가제약에 있어서는 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즉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40대 집단은 제약조건이 가장 높으며 20대와 30대도 대인제약이 높았으나, 50대 이후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의 직업노동에 대한 몰입이 40대 시기에 가장 높으며, 50대 이후에는 종교활동이나 여가활동을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동반자들과 함께 하는 경우(표영희, 1997)로 이해된다.

한편, 관련 변인에 따른 구조적 여가제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수준, 건강상태,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 직업, 노동지속년수 등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구조적 여가제약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1$), 이는 남자들이 시간부족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p<.05$), 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1$),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p<.01$), 노동지속년수가 길수록($p<.001$), 그리고 기혼보다는 미혼집단이($p<.001$) 구조적 여가제약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행정관리직 근로자가 구조적 여가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반대로 금융·경제기관 종사자는 구조적 여가제약을 가장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3가지 제약요인, 즉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빈도	백분율(%)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54	57.3	월평균 소득	100-150	45	16.9
	여	113	42.3		150-250	97	36.3
	계	267	100.0		250-350	56	21.0
연령	20대	100	37.6		350이상	69	25.8
	30대	124	46.6		계	267	100.0
	40대	35	13.2	직업+	사무·행정 관리	107	41.0
	50대이상	7	2.6		전문·기술 직	70	26.8
	계	266	100.0		금융·경제 기관	56	21.5
학력	고졸	36	13.5		서비스 및 판매·생산 ·일용 기타	28	10.7
	대졸(전문대 졸포함)	172	64.7		계	261	100.0
	대학원이상	58	21.8	노동지속 년수	3년미만	134	50.2
	계	266	100.0		3-7	61	22.8
건강상태	나쁨	29	10.9		7-10	23	8.6
	보통	142	53.2		10년이상	49	18.4
	좋음	96	36.0		계	267	100.0
	계	267	100.0	주5일 근무여부	시행	202	75.7
결혼여부	미혼	129	48.3		불시행	65	24.3
	기혼	138	51.7		계	267	100.0
	계	267	100.0				
변인		Mean		변인		Mean	
평균 연령(세)		32.65세		월평균 소득(만원)		255.93	

+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표집과정에서 특히 금융·경제기관 종사자들을
따로 분류함.

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그리고 구조적 제약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 분석

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관련 변인에 따른 인지적 여가태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 학력수준,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직업, 노동지속년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p<.05$), 학력수준이 높을수록($p<.01$),

<표 3> 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 차이분석 결과

구 분	N	여가 제약 척도						
		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M	SD	M	SD	M	SD	
성별	남	154	2.89	0.54	3.31	0.39	3.35	0.58
	여	113	2.86	0.56	3.35	0.75	3.19	0.38
T-value		1.687		-.636		2.656 **		
연령	20대	100	2.90	0.53	3.27 AB	0.35	3.19	0.38
	30대	124	2.89	0.52	3.31 AB	0.35	3.30	0.58
	40대 이상	35	3.10	0.71	3.44 B	0.42	3.46	0.51
	50대이상	7	3.14	0.43	2.88 A	0.40	3.35	0.54
F-value		1.768		4.837 **		2.609		
학력	고졸	36	2.81	0.63	3.24	0.42	3.18 A	0.48
	대졸	172	2.94	0.51	3.32	0.65	3.25 B	0.37
	대학원이상	58	2.98	0.62	3.41	0.38	3.44 C	0.79
F-value		1.037		1.022		3.900 *		
건강상태	나쁨	29	2.96	0.56	3.13	0.38	2.97 A	0.38
	보통	142	2.93	0.48	3.32	0.41	3.28 AB	0.38
	좋음	96	2.93	0.65	3.40	0.41	3.37 B	0.66
F-value		0.040		2.550		7.171 **		
결혼여부	미혼	129	2.88	0.54	3.32	0.38	3.16	0.36
	기혼	138	2.98	0.56	3.34	0.71	3.39	0.60
t-value		-1.478		-.230		-3.870 ***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45	2.85	0.62	3.19	0.41	3.15 A	0.39
	151-250만원	97	2.93	0.55	3.41	0.81	3.19 A	0.40
	251-350만원	56	2.91	1.48	3.27	0.30	3.30 AB	0.76
	351만원 이상	69	3.00	0.57	3.35	0.38	3.48 B	0.42
F-value		0.729		1.688		5.806 **		
직업	사무·행정관리	107	2.98	0.52	3.38	0.78	3.40 B	0.63
	전문·기술직	70	2.88	0.59	3.25	0.41	3.19 A	0.39
	금융·경제기관	56	2.87	0.41	3.34	0.28	3.18 A	0.37
	서비스 및 판매·생산·일용직	28	2.90	0.76	3.30	0.44	3.23 AB	0.44
F-value		0.747		0.721		3.479 *		
노동지속년수	3년미만	134	2.88	0.56	3.28	0.38	3.21 A	0.35
	3-7년	61	2.94	0.54	3.29	0.33	3.17 A	0.40
	7-10년	23	2.83	0.46	3.57	1.50	3.28 AB	0.44
	10년 이상	49	3.09	0.57	3.38	0.44	3.61 B	0.82
F-value		2.008		1.910		9.302 ***		
근무여부	시행	202	2.96	0.57	3.33	0.62	3.28	0.53
	불시행	65	2.85	0.50	3.31	0.39	3.22	0.43
t-value		1.401		0.264		0.075		

* p<.05 ** p<.01 ***p<.001

<표 4> 관련변인 특성에 따른 여가태도 차이분석 결과

구 분	N	여가 태도 척도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		
		M	SD	M	SD	M	SD	
성별	남	154	3.89	0.68	3.82	0.68	3.45	0.56
	여	113	3.72	0.66	3.70	0.67	3.27	0.59
T-value		2.051 *		1.402		2.609 *		
연령	20대	100	3.70	0.70	3.63 A	0.74	3.26 A	0.64
	30대	124	3.86	0.65	3.80 B	0.59	3.40 B	0.53
	40대 이상	35	4.02	0.59	4.07 C	0.65	3.53 B	0.48
	50대이상	7	3.92	0.83	3.89 B	0.99	3.68 C	0.73
F-value		2.374		3.965 **		2.804 *		
학력	고졸	36	3.72 A	0.59	3.68 A	0.73	3.34	0.72
	대졸	172	3.74 A	0.70	3.71 A	0.68	3.36	0.58
	대학원이상	58	4.10 B	0.57	3.99 B	0.59	3.44	0.49
F-value		6.949 **		4.038 *		0.503		
건강상태	나쁨	29	3.41 A	0.60	3.40 A	0.65	3.25	0.55
	보통	142	3.87 B	0.63	3.78 B	0.67	3.36	0.57
	좋음	96	3.88 B	0.72	3.88 B	0.68	3.43	0.61
F-value		6.257 **		5.723 **		1.147		
결혼여부	미혼	129	3.79	0.66	3.70	0.68	3.34	0.59
	기혼	138	3.85	0.69	3.84	0.67	3.41	0.57
t-value		-.680		-1.684		-.943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45	3.41 A	0.64	3.37 A	0.68	3.18 A	0.69
	151-250만원	97	3.80 B	0.69	3.76 B	0.67	3.32 AB	0.53
	251-350만원	56	3.88 B	0.58	3.85 B	0.61	3.51 B	0.58
	351만원 이상	69	4.08 C	0.61	4.00 C	0.64	3.48 B	0.55
F-value		10.109 ***		8.669 ***		3.799 *		
직업	사무·행정관리	107	3.87 AB	0.67	3.86	0.68	3.47 C	0.60
	전문·기술직	70	3.83 AB	0.69	3.77	0.70	3.39 B	0.60
	금융·경제기관	56	3.92 B	0.52	3.75	0.53	3.33 B	0.50
노동지속년수	서비스 및 판매·생산·일용직	28	3.44 A	0.74	3.47	0.78	3.07 A	0.55
	F-value		3.832 *		2.545		3.903 **	
주5일근무여부	3년미만	134	3.78 AB	0.68	3.72 AB	0.71	3.32 AB	0.56
	3-7년	61	3.72 A	0.68	3.61 A	0.57	3.26 A	0.59
	7-10년	23	3.82 AB	0.79	3.73 AB	0.67	3.38 AB	0.58
	10년 이상	49	4.09 B	0.52	4.14 B	0.59	3.67 B	0.56
F-value		3.265 *		6.462 ***		5.539 **		
부	시행	202	3.83	0.67	3.76	0.67	3.38	0.60
	불시행	65	3.81	0.69	3.82	0.70	3.36	0.53
t-value		0.172		-.612		0.225		

* p<.05 ** p<.01 ***p<.001

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1$),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p<.001$), 금융·경제기관 종사자인 경우 ($p<.05$)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 즉 인지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지속기간이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인지적 여가태도가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7년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관련 변인에 따라 정의적 여가태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수준,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노동지속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의 경우 유의수준 $p<.05$ 에서 40대 집단이 정의적 여가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집단이 가장 낮은 인지적 여가태도를 보였다. 학력수준 역시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정의적 여가태도가 높은 현상을 나타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1$),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p<.001$) 정의적 여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지속기간은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그 기간이 10년 이상된 집단이 정의적 여가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 집단이 정의적 여가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행동적 여가태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수입, 직업, 노동지속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유의수준 $p<.05$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행동적 여가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p<.05$), 수입이 많을수록($p<.05$) 행동적 여가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무·행정관리 종사자가 행동적 여가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기술직 종사자, 금융·경제기관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생산·일용직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p<.01$). 노동지속기간이 10년 이상의 집단에서 행동적 여가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7년~10년 미만, 3년 미만, 3년~7년 미만인 순으로 나타났다 ($p<.01$).

이와 같이 여가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월평균 소득과 노동지속기간 변인은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행동적 태도 영역 모두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여부와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밖에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변인은 여가태도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현·박정훈(2001)의 연구나 김경태(1996)의 연구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여가태도가 일관되게 교육수준, 건강정도, 수입 변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성, 연령, 결혼유무, 직업유무 변인에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구분된다.

4.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제약 요인이 인지적 여가태도에 대하여 갖는 설명력은 22.6%이며, F값은 45.39로 유의수준 $p<.001$ 에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제약 요인 모두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구조적 제약요인($\beta=.319$)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제약의 모든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그 중에서 시간이나 금전, 정보 등과 같은 구조적인 제약조건이 여가활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가제약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수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		
	β	t value	β	t value	β	t value	
여 가 제 약	내적 제약	-.165	-3.018**	.317	5.724***	.234	4.084***
	대인적 제약	.297	5.440***	.291	5.247***	.290	5.047***
	구조적 제약	.319	5.812***	-.104	-1.871	-.062	-1.081
Adj R ²	.226		.208		.152		
F value	45.39 ***		42.44 ***		34.41 ***		

* p<.05 ** p<.01 *** p<.001

정의적 여가태도에 대한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20.8%이며, F값은 42.44로 유의수준 p<.001에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여가제약과 대인적 여가제약은 정의적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조적 여가제약은 정의적 여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태도는 개인 내적 제약요인과 대인적 제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제약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행동적 여가태도에 대한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15.2%이며, F값은 34.41로 유의수준 p<.001에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적 여가태도와 마찬가지로, 내적 여가제약과 대인적 여가제약은 행동적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조적 여가제약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여가활동에 관련된 과거 혹은 현재의 행동 패턴은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인 지출이 요구되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보다는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느냐의 문제나 여가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는 80년대 이후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경우 여가의식 및 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서구선진사회의 영향을 받아 일부 특정 집단의 여가욕구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반면, 일부집단은 여가생활을 즐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집단 간 여가활동 참여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편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가태도는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여가제약과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

였고,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의 개인 내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제약요인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여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변인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적 여가제약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 건강상태, 결혼여부, 월평균수입, 직업, 노동지속년수, 주5일 근무여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인적 여가제약은 연령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적 여가제약은 성별, 학력수준, 건강상태,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 직업, 노동지속년수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관련 변인에 따른 여가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여가태도는 성별, 학력수준,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직업, 노동지속년수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정의적 여가태도는 연령, 학력,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노동지속년수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행동적 여가태도는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직업, 노동지속년수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월평균 소득과 노동지속년수 변인은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행동적 태도 영역 모두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여부와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여가제약 요인이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적 여가태도에는 내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제약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적 여가태도와 행동적 여가태도에는 내적 여가제약과 대인적 여가제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구조적 제약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장인들의 여가제약

은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여가에 대한 인지적 요소는 개인 특성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여가활동, 그리고 시간 및 경제적인 제약 요인들의 문제가 모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제약 중 구조적인 여가제약은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의적 태도나 실제 행동적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은 개인의 특성이나 동반자의 특성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여가제약과 여가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차이와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의 주관적인 여가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가제약의 영향력과 관련변인에 따른 여가제약 및 여가태도 변인의 차이 결과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어, 직장인들의 여가관련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여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집단성에 대한 연구나 가족여가의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리고 여가에 대한 심리적 특성 개발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참 고 문 헌】

- 1) 구창모(1995). 일반 성인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95 한국체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10-17.
- 2) 김경태(1996).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3) 김성희 · 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 태도에 따른 여가관태감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893-904.
- 4) 김재현 · 박정훈(2001).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태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2(3호), 333~344.
- 5) 박수정(1994). 고등학생의 몰입형 여가경험 이 여가기능, 여가권태,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6) 송원익 · 여인성(2004). 대도시근로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4), 685-697.
- 7) 원형중(1992). 레크레이션: 여가기능척도의 개발연구. *92국제스포츠학술대회 자료집*. 491-497.
- 8) 윤재섭(1991). 여가에 대한 태도조사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9) 이승구(2002). 레저스포츠 참여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26(1), 119-133.
- 10) 이훈 · 정철 · 정란수 · 이승구 · 정우철(2004). 여가활동과 제약요인 구조모형-PPA와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관광 · 레저연구* 16(2), 29-48.
- 11) 조기정(1985). 직업유형에 따른 일과 여가의 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 생산직과 관리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황인남(2000). 여가제약, 자아정체감과 여가스포츠 참가간의 인과분석 : 인문계 ·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홍석표(1992). 여가활동유형과 주관적 여가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Buchanan, T. & Allen, L.(1985).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in later life cycle stage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19, 39-50.
- 16)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17)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 9, 119-127.
- 18) Hollander, E.(1971). *Principles and Methods of Social Psych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19) Iso-Ahola, S. & Mannell, R.(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leisure. In M. G. Wade(ed),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Charles Thomas.
- 20) Iso-Ahola, S. E.(1981).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m. Co. Brown.
- 21) Jackson, E. L.(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55-70.
- 22) Jackson, E. L. & Henderson, K. A.(1995). Gender-based analysis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 17, 31-51.
- 23) Jackson, E. L. & Searle, M. S. (1985).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 concepts and models, *Society and Leisure*, 8, 693-707.
- 24) Jackson, E. L. & Witt, P. A.(1994). Change and stability in leisure constraints : A comparison of two surveys conducted four years apa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322-336.
- 25) Katz, D. and Stotland, E.(1959). A preliminary statement to a attitude structure and change,

- In: Koch, S.(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3, 423-475. New York: McGraw-Hill.
- 26) Lindgren, H.C.(1969).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27) Neulinger, J.(1976). *The Psychology of Leisure*.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 28) _____(1981). *The Need of the Implications of a Psychoogical Conception of Leisure*, The Ontario Psychologist.
- 29) Olson, J., & Zanna, M. Z(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 30) Ragheb, M. G. & Beard, J. G.(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155-167.
- 31) Shaw, S. M.(1994). Gender, leisure, and constraint: Toward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8-22.